

본당 소식

2024년 9월 교황님 기도지향 : '지구의 부르짖음'

우리가 저마다 지구의 부르짖음과 자연재해와 기후 위기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모든 이가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을 직접 돌보는 책임을 맡도록 기도합시다.

♣ 지난 주일(9/22),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장신호 요한보스코 총대리 주교님의 밀라노 한인성당 방문을 준비해주신 사목위 이하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견진성사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엄기용 안토니오, 박동현 요한 보스코, 정이한 다윗, 김익찬 암브로시오, 엄채운 엘리사벳, 정아인 레나, 윤미자 모니카, 박지숙 레아, 박건욱 레오, 이소현 엠마, 안태오 마태오, 안태리 소화 데레사, 강윤이 스텔라, 강윤아 헬레나, 안동진 안드레아, 강소현 율리아, 손지영 미카엘라, 주진경 율리아

♣ 2024년 이탈리아 한인성당 체육대회

- 일시: 10월 5일(토), 10:00~18:00
- 장소: Sport Village Assago (Via Giuseppe Di Vittorio, scn 20090 Assago (MI))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범장수 바오로

전례 성가

입당 : 268 (순교자의 믿음)

봉헌 : 342 (제물 드리니)

성체 : 175 (이 보다 더 큰 은혜와),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파견 : 283 (순교자 찬가)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419,00€ • 교무금 50,00€

전례 봉사

이번 주일(9월 29일)	다음 주일(10월 6일)
1독서: 범장수 바오로 2독서: 김효경 리타 복 사: 강윤이 스텔라, 김사빈 엠마	1독서: 2독서: 복 사: 변가인 헬레나, 김사빈 엠마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총무: 변의용 베네딕토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2024년 9월 29일 (녹)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 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주님의 규정을 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돌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1독서 (민수기 11,25-29)

그 무렵 25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 내시어 일흔 명의 원로들에게 내려 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26 그때에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

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 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27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28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29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제2독서 (야고보서 5,1-6)

1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2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3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4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5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6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음 (마르코 9,38-43,45,47-48)

그때에 38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4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42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43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5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7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8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저마다 다른 문화 속에서 화합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각 지역 교회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며 일치를 이루고 다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살피 주시어, 노인이 외로움과 질병의 고통을 이기고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으로 위로를 얻게 하소서.

3.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생겨나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보살피 주시어, 가는 곳에서 환대를 받으며 정착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4. 밀라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의 근원이신 주님, 저희 밀라노 교구 공동체에 지혜를 주시어, 하느님 마음에 들며 선하고 완전한 것을 분별하고,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을 찬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수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